

# 제55대 사임당 눈꽃 이경자 박사 “53050 우리들이야기” 가족전시회 개최

## 안동권씨 최초 사임당에 추대된 자랑스런 안동권문의 며느리 이경자 박사

제55대 사임당 눈꽃 이경자 박사 “53050 우리들이야기” 가족전시회가 결혼 50주년 금혼식 기념으로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전시회는 권혁홍 대양그룹 회장(대종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큰 아들 권택환과 정영은 부부, 둘째 아들 권우정과 흥향수 부부, 딸 권지혜와 송진오 부부, 손자 권용원, 권용준, 외손녀 송혜린, 외손녀 송재윤 등 가족 친지들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천주 한국 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눈꽃 이경자 사임당은 이 전시회를 통해서 가정이 뭐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 같다. 어른들 반성해야 한다. 여기저기 싸움판이고, 원망과 탓이 많다. 나이 많은 엄마 아빠가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몇 번이나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나. 옛날에는 못살았지만 가정과 가족이 있었다. 우리 모두 가정 찾는데 힘써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눈꽃 이경자 사임당이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개인이 전시회를 여는 것은 쉽지만 가족 전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이경자 사임당은 골판지를 화선지 삼아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골판지 그림은 처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장르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많은 일 해 주시길 바란다. 내년 청룡의 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 해피 뉴이어 메리크리스마스.

사임당 이경자 박사는 올해로 권혁홍 회장님과 결혼한 지 50주년이 되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월 15일에 제55대 사임당에 추대된 해이기도 하다. 금혼식과 사임당에 추대된 뜻 깊은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53050 우리들이야기’를 마련했다. 530은 5월 30일을 의미하는데. 우리 가족에게 5월 30일은 특별한 기념일이기도 하다. 권혁홍 회장님의 제가 5월 30일에 결혼식을 올렸다. 큰 아들 권택환과 며느리 정영은의 결혼기념일도 5월 30일이다. 작은 아들 권우정과 며느리 흥향수도 5월 30일에 결혼했다. 딸 권지혜와 사위 송진오의 자녀가 5월 30일에 태어났다. 이처럼 5월 30일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제목에 530이 들어가고 50은 저와 회장님의 결혼 50주년을 기념하는 숫자이다. 금혼식이다. ‘53050 우리들이야기’는 이런 의미이다. 라고 전시회의 의미를 소개했다.

이어서 권혁홍 회장, 딸 권지혜 가족, 큰 아들 권택환 가족, 둘째 아들 권우정 가족을 소개했다. 손자 권용준은 할머니 할아버지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손자를 늘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손자 권용원이 바이올린 연주를 시간으로 바이올린을 들고 나왔으나 연주하려고 품을 잡더니깐까 먹었라고 들어가자 좌중에서 웃음과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할머니 이경자 박사는 그런 수 있다면서 다시 생각나면 연주하려면 다복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축사에서 이경자 박사님은 10년 전에 문학박사를 취득하시고 올해는 제55대 사임당상에 추대되고, 결혼 50주년 금혼식이라고 한다. 깜짝 놀라고 부럽기만 하다. 권혁홍 회장님의 부럽다. 권혁홍 회장님은 중소기업중앙회 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대양그룹을 경영하고 계신다. 우리나라 제자골판지 업계 1위다. 산업에 꼭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있으며, 건강하게 청년같이 일하고 계신다. 여기 와서 보니 가족들이 모두 5월 30일에 결혼식을 올렸고, 외손녀 생일도 5월 30일이라고 하니 5월 30일은 권혁홍 회장님 가족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날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봉사하시면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임당 이경자 박사



53050 우리들이야기 주인공들



권혁홍 회장, 이일구 회장, 법해스님, 전명자 교수, 김기문 회장(왼쪽부터)

로만 사임당이 아니라 이렇게 모범적으로 가정 이끌어야지 무한한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혁홍 회장은 전시장을 가득 메운 내빈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집에서 애들 잘 키우고, 일도 도와주고, 작품 활동도 해서 정말 너무 고맙다. 혹시 서운한 게 있으면 다 털어버리고 남은 인생 고기보다 겹손하게 의롭게 살았으면 한다. 그동안 수고 많아 하셨다. 덕분에 전시회 온 것은 처음인 것 같다.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연주할 곡을 깜빡였다고 들어갔던 권용원이 바이올린을 멋지게 연주했다. 내빈들은 연주에 맞춰 다같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다음은 김기문 회장과 법해 스님, 이일구 회장, 전명자 교수 등을 권혁홍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테이프리본 컷팅을 하며 전시회의 개막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개막식 행사가 끝나자 사임당 이경자 박사와 권혁홍 회장은 귀빈을 비롯해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내빈들은 1층과 2층을 오가며 사임당 이경자 작가의 캘리그라피, 문인화, 서예, 민화, 회화, 사진 작품 등을 감상했다. 작품은 주로 작가의 글과 시인 김소월의 강촌과 엄마 누나와 강변 살자, 나태주의 풍꽃, 박물의 나그네, 이백의 시, 노천명의 시, 서정주의 산그들과 푸르른 날, 이육사의 청포도, 천상병의 귀천 등 유명 시인들의 시와 벽토르 위고, 노자, 백거이 샤갈 등의 명언들로 기득 담았다. 1층에는 작

가의 작품 41점과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 7~8점이 전시되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주변에는 손녀 손녀의 그림 30여점이 내빈들의 이목을 끌었다. 2층에는 작가의 60여점의 작품이 손님들을 맞이했다. 내빈들은 사임당 눈꽃 이경자 작가가 회화 역사상 최초로 골판지에 그린 작품들을 감상하며 작가의 안목과 그 탁월한 솜씨에 놀라워했다.

주최 측은 손님들에게 53050 우리들이 야기 도록 한 권씩 나누어 주었다. 도록에는 1973년 5월 30일 권혁홍 회장과 이경자 사임당이 결혼해서 50주년이 된 올해 14명의 가족사진을 첫 번째로 선을 보였다.

특히 김천주 한국소비자연합 이사장은 도록 축사에서 “이경자 사임당님은 유치원 원장으로 교육자뿐 아니라 안동권씨 가정에 시집가서 전통적이고 완고한 안동권씨 가문에서 인자한 며느리, 어머니가 되었고, 교육자로서 성실하게 사셨”라고 격려했다. 이경자 사임당은 권혁홍 회장의 팔순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당신의 팔순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50년을 함께 한 감회를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안동권씨와 살아보니  
꽃은 조금 더디 피더이다.  
타고난 양반인가에  
앞서가는 유행을 창조하진 못하지만  
감각을 이해하고 도와주더이다.

하늘의 순례에 순응하고  
인간의 도리를 아주 중시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시더이다.

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 가슴 안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정을 지지고 있더이다.

뚜렷한 신념이 있으며  
작은 이익을 위해  
그 뜻을 쉽게 꺾지 않더이다.

지극히 도덕적이며  
번잡스럽게 나태지 않고  
때론 때 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아이처럼 웃으시더이다.

그렇게 수십 년을  
함께하고 돌아보니  
활짝 편 꽃향기에  
미소 짓고 있더이다.

평범한 말로 표현했지만 참으로 깊고 울림이 크다. 부부간의 사랑과 믿음과 존경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진솔하면서도 속 알이 꽉 찬 한 편의 시다. 안동권씨 1100년의 역사에서 부부간에 살아온 그 마음을 글로써 표현하고 기록으로 남긴 며느리가 있었던가.

또한 도록에는 손자 권용준이 각종 미술 대회에서 수상한 상장과 트로피가 소개되어 있고, 권혁홍 회장 부부의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을 비롯하여 큰딸 권지혜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큰아들과 작은아들 결혼식 관련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다.

2022년 시즌 테사공 춘향제 봉행 시 권혁홍 회장이 초현관으로 헌작한 역사적 순간 두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때도 온 가족이 함께 했다. 2023년 안동권씨 최초로 제55대 사임당 추대식 장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참으로 뿌듯하고 장한 장면이다. 이는 권혁숙 회장 재임 시에 대종회에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가정에서 혼모양처이자 시대의 최고 어머니이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유아교육전문가로서, 사회활동가로서 학문과 예술은 물론 효행 등 다방면에 걸쳐 뛰어나셨던 사임당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사료되어 이

경자 박사를 사임당 후보로 추천, 안동권문의 제1호 사임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안동권씨와 살아보니’라는 시가 어떻게 나왔나 살펴보니 이경자 사임당이 20년 전에 직접 쓴 ‘사명서’가 눈에 띈다.

1.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 한국인. ~씨의 아내. ~의 어머니. ~원장. 기타

2.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오랫동안 유지한다. 남편이 노후에 일상생활에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으로 곁에서 도와준다.

3. 아이들(딸, 사위, 아들2, 며느리2)이 삶의 의논 상대로 제일 먼저 나를 찾는 지혜롭고 현명한 노인이 된다. 주위 사람 기죽이는 소리, 짹을 자르는 소리는 하지 말고 늘 친심으로 격려하고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한다.

4. 친구나 친지가 즐겁거나 힘이 들 때 찾아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된다. 정직하고 겸손, 수용, 용서, 노력하는 사람

5. 1년에 몇 권의 책을 읽어서 변해가는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

6. 봇글씨를 시작해서 아이들 집에 한글로 가훈을 써준다.

7. 한국의 뿌리와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친지, 가족, 후배에게 척척 얘기해 준다.

8. 노후에 남편의 친한 골프 친구가 된다.

9. 모든 열거해 놓은 것을 위해서 식생활 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노후에 건강하고 유아한 삶을 산다.

2003. 9. 1. 이경자 안동권씨

이 사명서는 이경자 사임당의 평소의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실천 덕목이다. 다정다감하면서도 그 진지한 삶의 태도에 웃잇이 여겨진다. 타의 귀감이 되는 안동권문의 어머니이고 며느리이어서 더 자랑스럽다.

조선 최초로 할아버지에서 손자에 이르기 까지 삼대가 연속 대제학을 지내 조선의 5대 명문가에 올라 타의 모범이 된 것, 조선 시대 과거급제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성씨, 문형자지(文衡之始), 족보지시(族譜之始) 등 시시(四始)를 비롯하여 안동권문의 뛰어난 역사적인 발자취에는 이경자 사임당과 같은 안동권문의 아내, 며느리, 어머니들이 함께 한 역사였기 가능했다. 이경자 사임당이 그 표본을 보여 주었다.

권행완 편집국장



프랑스 살롱 초대작가 사임당 이경자 박사 작품



권용준 편지 낭독



권용준 그림



권용원 바이올린 연주



권용원 그림. 전국아동미술대회 최우수상 수상